

사과 · 배

사과는 향미성분과 육즙이 풍부하여 널리 애용되는 과일이다. 1892년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 심기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아서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다. 재배의 주산지는 경상북도이며, 품종은 홍옥 · 국광 · 인도 · 왜금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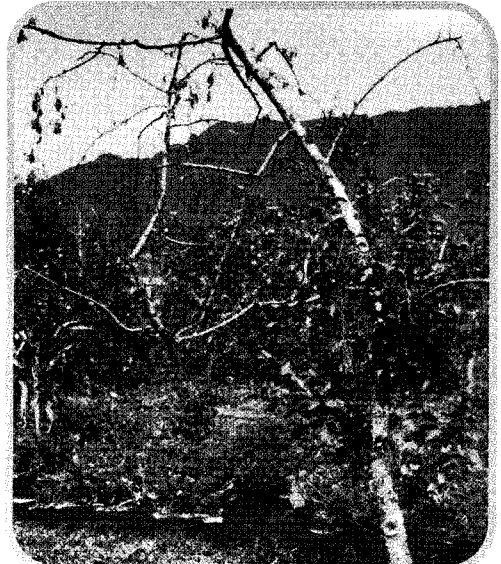
배는 시원하고 단맛이 있는 과일로 일찍부터 식용되었다. 현재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많이 재배되고 있다. 생과로 먹는 것이 주이나 통조림 · 잼으로도 이용된다.

■ 이영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미생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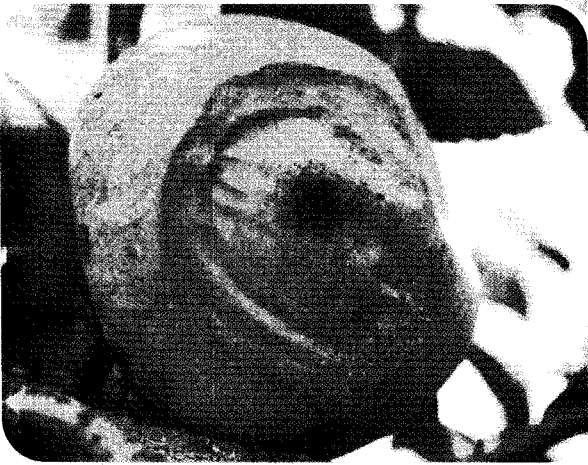
사과 부란병

원줄기나 가지에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나무의 표피가 갈색으로 변색되어 부풀어 오르고 쉽게 벗겨지면서 알코올냄새가 난다. 병든 부위가 건조하여 수분을 상실하고 함몰되면 그 표면에 융기된 거친 작은 빈점이 형성된다. 작은 가지는 봄에 발생하여 여름철의 고온기에 말라 죽는다.



사과 자주날개무늬병

토양 속에서 월동한 병원균의 균사에 의해 감염된 뿌리표면은 처음 적자색의 균사체가 자라면서 엉키고, 후에 균사속이 층을 형성하여 뿌리 전체를 둘러싸면서 자주색의 날개무늬로 나타난다. 병이 진전되면 땅가 부분의 줄기까지 자색의 균사체가 자라고, 지상부는 수세가 약해져 시들다가 말라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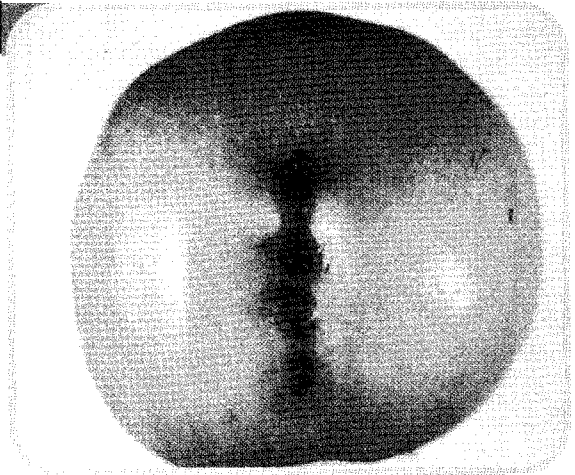


사과 겹무늬썩음병

주로 과실과 가지에 발생하며, 잎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과실에는 황갈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확대되어 윤문모양의 큰 병반이 형성되며, 심하면 물이 흐르고 과일전체가 부패하여 낙과한다. 가지는 주로 원줄기와 굵은 가지에서 사마귀증상과 동부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사마귀조피증상의 피해가 크다.

배 검은별무늬병

잎, 과실, 헛가지, 눈 등에 발생하는데, 잎에는 황백색의 다각형 무늬가 생기면서 점차 그을음 모양의 분생포자가 생겨 까맣게 변한다. 어린 과일에는 황변부위에 그을음 모양의 포자가 형성되며, 성숙과는 단단한 더듬이 증상이 나타나서 균열이 생긴다. 헛가지는 처음 흑색의 둥근 병반에서 진전되면 타원형으로 변하며, 그 표면에 그을음 모양의 분생포자가 많이 형성된다. 오래된 병무늬는 피사되고 퇴색하여 나무껍질과 유사한 색깔을 나타낸다.



배 붉은별무늬병

병은 어린 잎, 과실, 헛가지에 발생한다. 잎에는 처음 등황색의 아주 작은 반점이 생기면서 점차 커지며, 병반 뒤에는 담황색의 긴 모상체(녹포자기)가 생긴다. 개화기를 전후해서 비가 자주 오면 열매와 헛가지에도 이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오래된 이병엽은 황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잎 전체가 붉게 물든다. 피해가 심한 포장은 탄소동화작용이 방해되고 기형으로 되며, 조기낙엽의 원인이 된다. Y